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UCI]I804:11046-000000521742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병원경영전공

양 경 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

지도교수 김 태 현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17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병원경영전공
양 경 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양경진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태 현 인

심사위원 이 상 규 인

심사위원 김 노 을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년 6월 17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차 례

표 차례 ····· iii
그림차례 ····· iv
국문 요약 ····· vi

Ⅰ. 서 론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3

Ⅱ. 문헌고찰

1. 삶의 질 ····· 4
   가. 일상생활만족도 ····· 5
   나. 자아존중감 ····· 6
   다. 자기효능감 ····· 8
2.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 10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 13
2. 연구대상 ····· 14
3. 연구변수 ····· 15
4. 분석방법 ····· 20
5. 윤리적 고려 ····· 2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2
2. 조사 연도별 삶의 질 평균 변화 ····· 24
3. 변수 간 상관관계 및 VIF 추정 ····· 26
4.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9

Ⅴ. 고 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 32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 34

Ⅵ. 결론 및 제언 ····· 36

참 고 문 헌 ····· 38

ABSTRACT ····· 4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차 례

표 1. 산업재해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 12

표 2. 연구에 사용된 삶의 질 문항 내적 신뢰도 ····· 16

표 3.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 및 측정 ····· 19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3

표 5. 연도별 삶의 질 평균 변화 ····· 24

표 6. 조사시점별 삶의 질 차이 ····· 25

표 7.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 27

표 8. VIF 검정 결과 ····· 28

표 9. 개체 간 합동회귀모형 분석결과 ····· 30

표 10.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의 모형. ····· 13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국 문 요 약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

이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으로 나누어 다양한 변인들이 실질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확인해 봄으로써, 향후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향상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주관 산재보험 패널조사 1~5차(2013~2017년도)의 패널 2,000명 중 중도절단 사건과 결측 사례를 제외한 1차년도 2,000명, 2차년도 1,803명, 3차년도 1,704명, 4차년도 1,660명, 5차년도 1,616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며, 독립변수인 삶의 질 영향요인은 인구사회학적요인, 산업재해요인, 직업경제적요인, 건강관련요인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와 STATA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관계분석, 패널회귀분석(고정효과모형)을 하였다.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은 요양종결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주관적 건강상태와 취업여부가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지하고, 취업자인 경우 삶의 질이 높았다. 일상생활만족도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유무, 취업유무, 권역, 연령, 가구소득이 유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건강행태 순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연령과 건강행태 순서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마련과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미취업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어 : 산업재해, 삶의 질, 일상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Ⅰ. 서 론

1. 연구배경

우리나라에서 사고나 질병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는 2017년 89,848명, 2018년 10만 2,305명으로(고용노동부, 2019)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196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산재보험은 '신속,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에 대하여 근로기간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치료와 급여(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를 보장하고, 근로자 보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윤조덕, 2016).

하지만 산재보상보험을 통한 제도적인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으로 인한 삶의 부정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손상과 상실은 우선 소득의 변화로 경제적 곤란을 발생시키며, 직장생활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장선용, 2019). 또한 산재근로자의 질병이나 사소의 원인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일반 장애인 보다 사회에 대한 보상심리와 방어기재가 강하며, 불안, 강박, 적대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던 직장과의 대립, 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사회적 고립이 발생시키기도 한다(장정미 등, 2009).

이렇듯 산업재해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 손상의 회복에만 치중한 의료적 처치나 노동력 손실에 따른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재활의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위기 상황과 산재근로자의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요인의 강화와 직업적응력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위한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김경숙, 2016).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으로서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박혜경, 2010; 배경남, 2016; 김광배, 2017;)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김선미 외, 2015)등 대부분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을 규명하는 수준이며 또한 횡단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되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규명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직업복귀와 사회 재참여에 중요 변수로 연구되면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안준기 외,2015; 이준희 외, 2016; 박지연, 2019),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통한 재활사업의 실증효과 분석(임병규, 2018)등 일상생활만족으로 정의되는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뿐만이 아닌 산재보험 패널조사에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지표로 정의 한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각 요소들의 중요성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일상생활만족도 및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사회 재참여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으로 나누어 보다 다각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산재보험 패널조사 1차 코호트에 해당하는 2013년 ~ 2017년 까지 5개년의 자료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질 영향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산재보험 패널조사의 전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지표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Ⅱ. 문헌고찰

1. 삶의 질

세계보건기구는 삶의 질을 각 개인의 문화, 가치 체계 속에서 자신의 목표와 기대, 자신의 상태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WHO, 1997). 경제학적 측면에서 삶의 질은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회 발전 지표로 사용되어, 특정한 사회나 국가단위에서 일종의 공공제, 경제제의 총 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반면, 심리학에서는 심리적인 안녕감, 행복감을 삶의 질을 유사 동일개념으로 사용하여 건강, 사회활동, 직장, 여가, 지역사회, 가족관계 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과 개인의 타고난 기질을 통해 형성된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혹은 심리적 안녕감을 삶의 질로 정의하였다(고명철, 2013).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와 노동능력 손상에 의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변화는 생활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행복감을 나타내는 일상생활만족도 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스스로가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신뢰를 발견하는 자아존중감(Coopersmith, 1967) 및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의 변화된 능력을 최대화 하여 산재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효능감(김태수, 2010)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산재보험 패널조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산업재해가 삶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 만족도 및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사회 재참여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로 정의하였다(근로복지공단, 2014).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가. 일상생활 만족도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폭과 함께 일상생활만족도는 현대인의 삶의 질에 대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건강, 경제, 문화, 가족관계, 안전 등에서 개인의 만족감을 수치화 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상생활만족은 인간의 행복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주관적 지표로서 생활 전반에 걸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객관적 만족감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며, 개인의 기대와 충족의 일치에서 오는 생활전반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박준성 외, 2010).

일상생활만족은 삶의 질의 개념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Clover(2008)는 삶의 질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개인의 느낌이나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의 환경과 가치, 정치제도, 경제적 조건 그리고 국가관의 관계를 의미하는 광범위하면서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일상생활만족은 삶에 대한 주관적 특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며 희망이나 기대와 같은 일련의 가치와 관련된 개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 하였다. 결국, 일상생활만족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환경에 대한 지표나 통계보다는 개인이 현재 생활에서 느끼고 스스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주관적·심리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이중섭, 2009). 즉 주관적인 개념의 삶의 질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지표와 주관적 만족을 나타내는 지표 사이에는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정(正)의 관계로, 때로는 부(負)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며, 때로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가변성'을 갖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가변성은 우선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기대수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신의 객관적인 조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현재의 조건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오혁제, 2009).

일상생활만족은 직업 및 소득에 따른 경제수준,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교육수준 등의 인적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는 일상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승배, 2009). 특히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위요인은 인구사회학적요인(성별, 연령, 가구소득), 장해관련요인(장해등급, 겨과연수, 보조기구의 사용 여부), 인적자본요인(학력, 직업훈련 경험의 여부), 사회·환경적요인(일상생활도움 필요 정도,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 여부, 주택개조, 주택생활 편리 등)으로 선행연구 되었다(박혜경 2010).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 대한 평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인정과 자신감으로 이루어진다. 즉,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개인의 인지와 감정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의식하고 평가하는 정도이며(Rosenberg, 1979), 일상생활 적응이나 만족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계속적인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힘이 된다(Bandura, 1977).

자아존중감을 정의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특징은 첫째, 자아존중감은 세부적이거나 일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경향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성별, 나이, 상황 등 경험영역의 다양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셋째, 자아평가는 개인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자신의 행동, 능력, 태도를 스스로 검토하여 자신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의 가치를 결정내리는 판단과정이다(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에는 불평등과 같은 스트레스 환경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되어 업무능력 증진, 삶의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성취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고(Campbell 외, 1993), 자아존중감이 낮은 상황은 불안, 우울, 대인관계장애를 발생시키고, 스트레스 대처 및 문제해결능력, 적응능력이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 된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신건강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인 동시에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간접적인 지표로도 볼 수 있다(이준희 외, 2016; 이문정 외, 2017). 자아존중감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가치 있고 능력이 높으며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와 사회에 욕구를 충족시키며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여 성공경험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백원칠 외, 2004).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장애인에게서 특히 자기실현과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신체, 정신적 건강의 기초가 되며,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산업근로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 자격증 보유갯수, 주관적 건강상태, 요양기간, 고용형태, 직업재활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박지연, 2019)고 하였으며,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무급가족 종사자, 실직자 보다 재취업과 원직장복귀자가 자아존중감이 높다 보고하였다(이준희 외, 2016). 반면에 산재근로자의 통증, 신체기능의 손실은 자아존중감을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송문희 외, 2017).

또한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은 직장복귀와 사회관계 강화와도 관련된 주요 원인으로 연구되었는데, 원직장복귀 산재근로자의 직장 적응에 영향을 미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치는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장 및 업무의 적응, 직무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임정연 외, 2016; 이정한, 2015).

이와 같이 산재근로자에게 자아존중감은 경제활동과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산재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후 산업재해로 인한 부정적 관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Bonnie 등, 2011), 부정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재해가 재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산재 근로자에게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하는 심리적 문제이다(정인희, 2012).

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개인이 스스로의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고 인내하는 행위에 대한 기대로서 주어진 상황을 잘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의 확신, 신념과 힘을 의미한다(Bandura, 1977).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과업관련 행동에 더 참여하려고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성향은 더 많은 성취 경험을 얻도록 도와주고, 성공에 대한 경험은 다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손상된 경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포기하거나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Bandura, 1977). 이렇듯 자기효능감은 본인이 어떤 일을 성취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의미하는 역량감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백기복, 2011), 적응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변수로서, 특히 산재근로자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의 변화된 능력을 최대화 하여 산재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김태수, 2010).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또한 자기효능감은 산재근로자의 변화된 직업환경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의미하는데, 이는 산업재해를 통해 근로자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직장생활과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김지원, 2013), 장해에 대한 수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체계로 작용한다(강선경 외, 2013)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적인 위기에 빠질 위험이 낮아지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권택순, 2015).

산재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직업 복귀 여부나 업무수행능력,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아 인지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박수경, 2012),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산재근로자의 업무만족도가 높아지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태도가 직업적응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김경숙, 2016; 김용구, 2014)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은 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 수입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고 하였다(임정연 외, 2016; 박선일 외, 2004). 직업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높다고 하였다(박수경, 2012). 또한 건강행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익성, 자아존중감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건강증진행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변도화 외, 2009).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을 나타내는 자아개념의 특수 영역으로서(곽호근, 2007) 산업재해근로자들이 심리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2018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보상보험 가입 근로자 1,907만여 명 중 10만 2,305명이 발생하여, 재해율은 0.54%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 하였고, 이 중 사고 재해자는 90,832명, 질병 재해자는 11,473명이다.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자과,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까지 산재 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건설업 28,985개소, 그 외 10.755개소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되어 산재보상보험의 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2.8% 증가하지만, 재해율은 13.9% 증가한 수치이다(고용노동부, 2019).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노동 능력을 손상 또는 상실하게 되고, 신체적·정신적 장해 또는 장애를 얻게 된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재해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준다(근로복지공단, 2018).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변화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남은 산재장애인은 요양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직장복귀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성실히 근로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장애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직장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사정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원직장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김지원, 2013).

삶의 질의 개념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예상하지 못한 재해를 통해 삶의 위치에 관한 인식이 변경되고, 육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사회적 관계와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얻게 되고, 특히 장해를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 선천적인 장애인과는 달리 산재 이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변화된 신체기능에 대한 수용의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신체기능의 상실, 생활수준의 변화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우울 , 자존감 저하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되는 경우가 많다(박수경, 1997).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신속한 직업의 복귀는 추가적인 장애예방에 필수적이며, 직업의 복귀가 지연될수록 생산성과 중요한 직업기능들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산재근로자의 취업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보장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전보경 외, 2012). 또한 산재근로자는 가족 및 대인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수준, 심리적 측면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서 산재장애인들이 사회적 기능을 잃고 방치될 때,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의료 및 직업 재활서비스는 심리·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을 통해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서 일상적인 삶의 질의 향상과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도구가 된다고 보았다(정강화, 2008).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표 1]과 같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1. 산업재해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번호	저자	제목(연도)	자료 출처	연구결과
1	김광배	산재근로자의 복귀 형태와 유지기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7)	산재 보험 패널 조사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보다 삶의 질이 더 높으며, 직업복귀의 유지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남
2	연현숙	직장복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5)	산재 보험 패널 조사	원직장복귀군의 삶의 질은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 월평균 급여가 높을수록, 재취업군은 직무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이 자각하는 업무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남
3	김선미 외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2015)	산재 보험 패널 조사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며, 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비법정 복리후생, 근로기간, 취업상태로 나타남
4	김미란	산재환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 : IFC 모형을 중심으로(2014)	산재 병원 설문 조사	산재환자의 삶의 질은 개인요인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클수록, 환경요인의 가족기능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5	박애선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18)	산재 보험 패널 조사	재취업근로자들의 삶의질은 보통수준이었고, 삶의 질 영향 요인으로는 연령, 배우자유무, 최종학력, 종사상 지위 등으로 나타남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산재보험 패널조사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근로자가 가진 특성이 삶의 질(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종단적 서술연구이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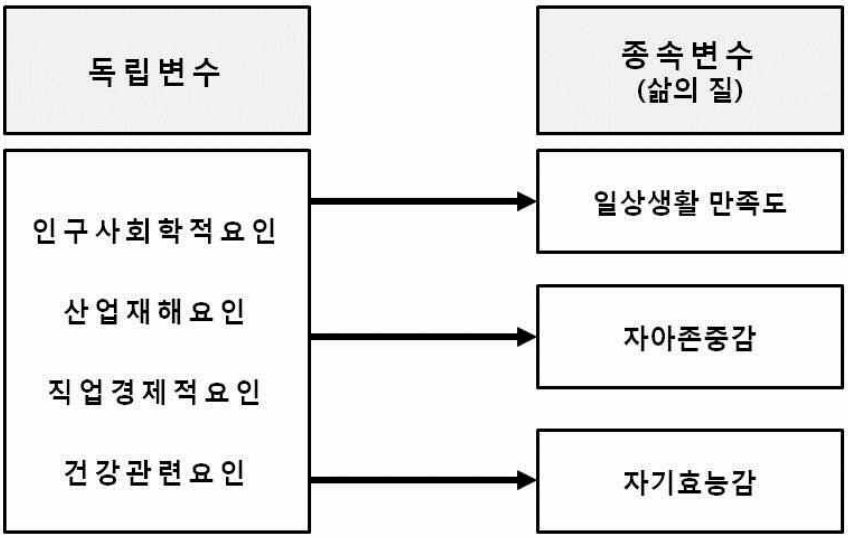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재보험 패널조사(제1차~5차 : 2013년~2017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산재보험 패널조사는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시장 참여, 산업재해 관련 사항, 개인 및 가구 특성, 건강과 삶의 질 등과 같이 다면적이며 체계적인 자료들로 축적되어 있고, 더욱이 조사대상이 산재로 인해 치료가 종결된 산재근로자이므로, 요양을 완료한 이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효과와 그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조사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내국인 산재 장해인, 산재요양종결자,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요양종결 산재근로자(비장해인 포함) 89,921명 중 층화비례배분 한 2,000명을 최종 표본크기로 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2018).

본 연구에서는 1~5차(2013~2017년도) 산재보험 패널조사의 패널 2,000명의 축적된 총 5회차의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중도절단 사건과 결측 사례를 제외하고 1차년도 2,000명, 2차년도 1,803명, 3차년도 1,704명, 4차년도 1,660명, 5차년도 1,616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산재보험 패널조사 1~5차에서 측정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조사항목에 따라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으로 나누었으며, 독립변수는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요인, 산업재해요인, 직업경제적요인, 건강관련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가. 종속변수

1) 일상생활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도는 산재보험 패널조사에서 일상생활 만족도에 해당하는 6개의 문항(가족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을 '매우만족'(1)에서 '매우불만족'(5))을 역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steem Scale, RSES)를 전병제(1974)가 번안, 수정한 도구이며,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4)'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0개의 문항 중 부정적 자아개념 5문항(3,5,8,9,10)을 일괄적으로 역코딩 변경하여 총 10개의 문항의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Jacobs와 Rogers(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홍혜영(199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17문항,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 6문항의 두 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개의 문항 중 자기효능감 부정개념 12문항(2,5,6,7,10,12,14,16,17,18,20,22)을 일괄적으로 역코딩 변경하여 총 23개의 문항의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표 2. 연구에 사용된 삶의 질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s α)

차 수	일상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1차년도	.789	.433	.604
2차년도	.845	.436	.545
3차년도	.858	.393	.533
4차년도	.858	.396	.582
5차년도	.855	.385	.53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권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1), 여(0)으로 코딩 변경하여 분석하였고, 연령은 조사가 진행된 8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 나이로 범주화된 변수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상(1), 고졸미만(0)으로 코딩변경 하였다. 배우자 여부는 혼인을 배우자 있음(1)으로, 미혼, 별거, 이혼, 사별을 배우자 없음(0)으로 재구성하였다. 권역은 15개 시도를 9개의 권역(서울, 부산, 대구/경북, 강원, 경남/울산, 경기, 인천, 전라, 충청)으로 묶은 변수를 0=비수도권(부산, 대구/경북, 강원, 경남/울산, 전라, 충청), 1=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산업재해 요인

요양기간, 재해유형(질병/사고),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장해등급이 포함되었다. 요양기간은 원자료 범주 구분을 1=6개월 이하, 2=7개월 이상~1년 이하, 3=1년 초과로 재구성하였다. 재해유형은 0=질병, 1=사고로 재구성 하였으며,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패널이 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뜻하며 0=이용하지 않음, 1=1번 이상 이용함으로 재구성 하였다. 장해등급 변수는 산재로 인한 장해등급에 따라 1=1~3등급, 2=4~7등급, 3=8~14등급, 4=무장해로 재구성하였다.

3) 직업경제적 요인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유형, 개인소득, 가족소득이 포함되었다. 경제활동상태는 0=미취업자(실직자, 비경제활동인구), 1=취업자(원직장 복귀자, 재취업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로 재구성 하였으며, 경재활동유형은 원직장복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원직장복귀자 0=그 외(재취업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직자, 비경제활동인구)로 재구성 하였따. 개인소득은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소득과 근로 외 소득의 합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재구성 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지난 1년간 가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근로 외 소득의 합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재구성 하였다.

4) 건강관련요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무, 건강행태(운동, 수면, 흡연, 음주)가 포함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응답자가 주관적인 생각을 답변하는 것으로 원자료 '1=매우좋지않다~4=매우좋다'를 좋지않다(0), 좋다(1)로 재구성하였다. 만성질환유무는 객관적 의료데이터가 아닌 산재근로자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을 개인적인 판단으로 만성질환 유무로 조사된 원자료를 만성질환이 있다(0), 없다(1)으로 재구성하였다. 건강행태에는 운동, 수면, 흡연, 음주가 포함되었다. 운동은 일주일 운동 횟수에 따라 주 1회 이상 하는 경우(1) 과 운동을 하지 않는다(0) 구성하였다. 수면은 하루 평균 수면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이상 수면(1), 6시간미만 수면(0) 으로 구성하였다. 음주는 현재 음주 여부로서 "마신다"(0)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와 "마셔본적이 없다"의 경우를 마시지 않는다(1)로 재구성하였다. 흡연은 현재흡연 여부로서 "피운다"를 흡연(0),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와 "피워본적이 없다"를 비흡연(1)으로 재구성하였다. 운동, 수면, 흡연, 음주의 4가지 건강행태를 모두 합산(0~4점 척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3.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 및 측정

구 분	내 용	측정척도
삶의 질	일상생활만족도	1~5점 척도
	자아존중감	1~4점 척도
	자기효능감	1~5점 척도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1=20대이하 2=30대 3=40대 4=50대 5=60대이상
	최종학력	0=고졸미만 1=고졸이상
	배우자유무	0=무(미혼, 별거, 이혼, 사별) 1=유
	권역	0=비수도권 1=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산재관련 요인	질병/장해	0=질병 1=장해
	요양기간	1=6개월이하 2=7개월이상 ~ 1년이하 3=1년초과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0=이용하지 않음 1=1번 이상 이용함
	장해등급	1=1~3등급 2=4~7등급 3=8~14등급 4=무장해
직업관련 요인	취업여부	0=미취업자 1=취업자
	경제활동유형 (2개구분)	0=그 외 1=원직장복귀자
	개인 총소득 (근로소득 + 근로 외 소득)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3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4=6천만원 이상
	가구 총소득 (근로소득 + 근로 외 소득)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3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4=6천만원 이상
건강관련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좋지 않다 1=좋다
	만성질병유무	0=무 1=유
	건강행태 실천 (운동, 수면, 흡연, 음주)	0~4점 척도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 분석방법

이 연구는 산재보험 패널조사의 제1차(2013년)~5차(2017년)에 해당하는 연간 데이터 5개년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자료의 병합과 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이용하고 Stata 14는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각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및 삶의 질 평균을 파악하기 위해 Spss, Stata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을 실시하였다.

둘째,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은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을 실시하고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델을 적합모델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Y-2019-0008)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1차년도를 기준으로 인구사회학적요인에서 성별은 남성 84.3%, 여성 15.7% 연령은 50대가 38.4%로 가장 많았고, 40대 24.6%, 60대 19.3%, 30대 13.4%, 20대 이하가 4.3%로 가장 작았다. 교육수준은 고졸미만이 39.4%, 고졸이상이 60.7%,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29.5%,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0.6%, 권역은 비수권이 55.9%, 수도권이 44.2%으로 조사되었다. 요양기간은 6개월 미만 57.4%, 6개월 이상 ~1년 이하 32.4%, 1년 초과 10.3%, 재해발생유형은 질병 8.4%, 사고 91.6%,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에서는 재활서비스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48.2%, 1번 이상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1.9%로 조사되었다. 장해등급은 8~14등급이 76.9%로 가장 많았고, 무장해 17.5%, 4~7등급 4.2%, 1~3등급 1.5%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1차년도 70.6%에서 5차년도 81.3%로 증가하였고, 원직장복귀자는 1차년도 34.8%에서 5차년도 26.4%로 감소하였다. 개인소득은 1~5차년도 모두 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가구소득은 3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인 가장 많았다. 건강관련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경우 1차년도 55.3%에서 5차년도 64.7%로 증가하였고, 만성질환 보유자는 1차년도 16.6%에서 5차년도 37.8%로 증가하였다. 건강행태의 세부항목인 운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 1차년도 51.9%, 수면은 6시간 이상 수면하는 경우 1차년도 87.2%로 나타났고, 흡연의 경우 1차년도에 72.1%였던 흡연자가 5차년도 48.8%로 감소, 음주의 경우에서도 음주를 하는 경우가 1차년도 44.9%에서 5차년도 34.5%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차 (n=2000)		2차 (n=1803)		3차 (n=1704)		4차 (n=1660)		5차 (n=1616)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686	84.3	1514	84.0	1422	83.5	1382	83.3	1337	82.7
	여성	314	15.7	289	16.0	282	16.5	278	16.7	279	17.3
연령	20대 이하	78	4.3	78	4.3	59	3.5	46	2.8	30	1.9
	30대	242	13.4	242	13.4	200	11.7	174	10.5	162	10.0
	40대	443	24.6	443	24.6	407	23.9	370	22.3	337	20.9
	50대	692	38.4	692	38.4	597	35.0	574	34.6	533	33.0
	60대 이상	348	19.3	348	19.3	441	25.9	496	29.9	554	34.3
교육 수준	고졸미만	787	39.4	714	39.6	678	39.8	664	40.0	650	40.2
	고졸이상	1213	60.7	1089	60.4	1026	60.2	996	60.0	966	59.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589	29.5	518	28.7	477	28.0	466	28.1	444	27.5
	배우자 있음	1411	70.6	1285	71.3	1227	72.0	1194	71.9	1172	72.5
권역	비수도권	1117	55.9	1208	60.4	1271	63.6	1292	64.6	1308	65.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83	44.2	792	39.6	729	36.4	708	35.4	692	34.6
요양 기간	6개월 미만	1148	57.4	1032	57.2	986	57.9	960	57.8	932	57.7
	6개월이상 ~ 1년이하	647	32.4	579	32.1	543	31.9	529	31.9	519	32.1
	1년 초과	205	10.3	192	10.6	175	10.3	171	10.3	165	10.2
재해발생 유형	질병	168	8.4	158	8.8	140	8.2	136	8.2	137	8.5
	사고	1832	91.6	1645	91.2	1564	91.8	1524	91.8	1479	91.5
재활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음	963	48.2	855	47.4	807	47.4	784	47.2	771	47.7
	1번 이상 이용함	1037	51.9	948	52.6	897	52.6	876	52.8	845	52.3
장해 등급	1~3등급	30	1.5	28	1.6	25	1.5	25	1.5	22	1.4
	4~7등급	83	4.2	78	4.3	70	4.1	68	4.1	68	4.2
	8~14등급	1537	76.9	1385	76.8	1306	76.6	1272	76.6	1240	76.7
	무장해	350	17.5	312	17.3	303	17.8	295	17.8	286	17.7
취업 여부	미취업자	588	29.4	358	19.9	333	19.5	305	18.4	306	18.9
	취업자	1412	70.6	1445	80.1	1371	80.5	1355	81.6	1310	81.1
경재활동 유형	그 외	1305	65.2	1239	68.7	1205	70.7	1202	72.4	1190	73.6
	원직장복귀자	695	34.8	564	31.3	499	29.3	458	27.6	426	26.4
개인 소득	천만원 이하	65	4.4	173	12.1	148	10.6	111	7.9	104	7.8
	천만원 초과~3천 이하	721	49.0	804	56.5	819	58.9	824	58.9	744	55.6
	3천 초과~6천 이하	548	37.2	400	28.1	387	27.8	430	30.8	452	33.8
	6천 초과	138	9.4	47	3.3	37	2.7	33	2.4	37	2.8
가구 소득	천만원 이하	62	3.1	104	6.2	70	4.4	48	3.1	55	3.6
	천만원 초과~3천 이하	596	29.8	676	40.4	647	40.8	588	38.0	535	35.5
	3천 초과~6천 이하	916	45.8	718	42.9	706	44.6	733	47.3	724	48.0
	6천 초과	426	21.3	176	10.5	161	10.2	180	11.6	193	12.8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않다	895	44.8	679	37.7	664	39.0	622	37.5	571	35.3
	좋다	1105	55.3	1124	62.3	1040	61.0	1038	62.5	1045	64.7
만성질병 유무	유	332	16.6	390	21.6	488	28.6	544	32.8	611	37.8
	무	1668	83.4	1413	78.4	1216	71.4	1116	67.2	1005	62.2
운동	안한다	962	48.1	905	50.2	892	52.3	916	55.2	829	51.3
	주 1회 이상	1038	51.9	898	49.8	812	47.7	744	44.8	787	48.7
수면	6시간 미만	256	12.8	232	12.9	182	10.7	158	9.5	157	9.7
	6시간 이상	1744	87.2	1571	87.1	1522	89.3	1502	90.5	1459	90.3
흡연	흡연	1441	72.1	1155	67.8	1042	62.8	1053	65.2	975	48.8
	비흡연/금연	559	28.0	549	32.2	618	37.2	563	34.8	1025	51.3
음주	마신다	809	44.9	809	44.9	669	39.3	627	37.8	558	34.5
	마시지 않는다	994	55.1	994	55.1	1035	60.7	1033	62.2	1058	65.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조사 연도별 삶의 질 평균 변화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 평균은 일상생활만족도 1차년도(M=3.25), 2차년도(M=3.27), 3차년도(M=3.31), 4차년도(M=3.35), 5차년도(M=3.37)으로 약하게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M=3.43), 2차년도(M=3.43), 3차년도(M=3.44), 4차년도(M=3.44), 5차년도(M=3.42)로 평균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자기효능감은 1차년도(M=2.96), 2차년도(M=2.97), 3차년도(M=2.98), 4차년도(M=3.01), 5차년도(M=3.03)으로 평균이 약하게 증가하였다[표 5].

조사시점별 삶의 질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일상생활만족도에서는 1차년도에서 2차년도와 4차년도에서 5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조사시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3차년도를 기준으로 5차년도에 대해, 4차년도에서 5차년도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자기효능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 2차년도에서 3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조사시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도별 삶의 질 평균 변화

차 수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M	S.D	min	max	M	S.D	min	max	M	S.D	min	max
1차년도	3.25	.504	1.33	5.00	3.43	.471	1.65	5.00	2.96	.442	1.30	4.00
2차년도	3.27	.519	1.00	5.00	3.43	.488	1.30	5.00	2.97	.452	1.20	4.00
3차년도	3.31	.499	1.00	4.67	3.44	.472	1.39	4.83	2.98	.430	1.40	4.00
4차년도	3.35	.498	1.00	4.67	3.44	.455	1.61	4.78	3.01	.421	1.50	4.00
5차년도	3.37	.499	1.00	5.00	3.42	.460	1.30	4.83	3.03	.414	1.50	4.00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6. 조사시점별 삶의 질 차이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M	S.D	t	M	S.D	t	M	S.D	t
pair 1	y1	3.26	0.50	-.92	3.43	0.47	-0.18	2.96	0.44	-0.94
	y2	3.27	0.52		3.43	0.49		2.97	0.45	
pair 2	y1	3.26	0.50	-3.948***	3.42	0.47	-0.93	2.96	0.45	-2.56*
	y3	3.31	0.50		3.44	0.47		2.99	0.43	
pair 3	y1	3.26	0.50	-7.35***	3.42	0.47	-1.05	2.96	0.44	-4.62***
	y4	3.36	0.50		3.44	0.45		3.01	0.42	
pair 4	y1	3.27	0.50	-8.204***	3.42	0.47	0.53	2.97	0.44	-5.86***
	y5	3.37	0.50		3.42	0.46		3.03	0.41	
pair 5	y2	3.27	0.52	-3.95***	3.43	0.49	-0.48	2.98	0.45	-1.36
	y3	3.32	0.50		3.44	0.47		2.99	0.43	
pair 6	y2	3.28	0.52	-7.09***	3.44	0.49	-0.43	2.98	0.45	-3.61***
	y4	3.36	0.50		3.44	0.45		3.02	0.42	
pair 7	y2	3.28	0.51	-7.99***	3.44	0.49	1.37	2.99	0.45	-4.93***
	y5	3.38	0.50		3.42	0.46		3.03	0.41	
pair 8	y3	3.32	0.50	-3.84***	3.44	0.47	-0.23	2.99	0.43	-2.19*
	y4	3.36	0.50		3.44	0.45		3.01	0.42	
pair 9	y3	3.32	0.50	-5.04***	3.44	0.47	2.22*	3.00	0.43	-3.56***
	y5	3.37	0.50		3.42	0.46		3.03	0.42	
pair 10	y4	3.36	0.50	-1.59	3.43	0.45	2.23*	3.01	0.42	-2.12*
	y5	3.38	0.50		3.42	0.46		3.03	0.4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3. 변수 간 상관관계 및 VIF 추정

변수들 사이의 변이 규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tata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7], 교육수준과 연령 간 상관관계(r=-0.550)가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공산성을 확인하기 위한 VIF 분석 결과[표 8] VIF 계수가 1에 가까이 있으며, 10이상인 변수도 없어 다중공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7.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권역	요양기간	질병/사고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장해등급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유형	개인소득	가족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병 유무	건강행태
성별	1															
연령	-0.117	1														
교육수준	0.144	**-0.550**	1													
배우자 유무	0.089	0.257	-0.038	1												
권역	0.010	-0.031	-0.017	0.011	1											
요양기간	0.072	0.065	-0.023	0.004	-0.028	1										
질병/사고	-0.021	-0.006	-0.035	-0.062	-0.021	-0.072	1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0.012	0.062	-0.012	0.024	-0.007	0.384	-0.091	1								
장해등급	-0.099	-0.102	0.046	-0.021	0.009	-0.397	0.055	-0.355	1							
경제활동상태	0.103	-0.176	0.166	0.048	0.017	-0.221	0.006	-0.127	0.197	1						
경재활동유형	0.035	-0.127	0.187	0.111	0.001	-0.148	-0.082	-0.101	0.066	0.344	1					
개인소득	0.261	-0.159	0.257	0.166	0.001	0.035	-0.094	0.024	-0.087	0.157	0.272	1				
가족소득	0.079	-0.129	0.243	0.233	0.023	0.010	-0.091	0.021	-0.049	0.122	0.206	0.652	1			
주관적 건강상태	0.047	-0.243	0.256	0.233	0.003	-0.201	0.060	-0.134	0.181	0.342	0.271	0.158	0.162	1		
만성질병유무	0.069	-0.297	0.239	0.233	-0.027	-0.053	0.037	-0.031	0.060	0.158	0.112	0.090	0.101	0.292	1	
건강행태	-0.308	0.156	-0.044	0.057	0.006	0.053	-0.061	0.028	-0.028	-0.155	0.001	-0.049	0.029	-0.039	-0.110	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8. VIF 검정 결과

변수	VIF	1/VIF
개인소득	1.97	0.507
가족소득	1.89	0.528
연령	1.66	0.602
교육수준	1.57	0.636
성별	1.24	0.803
재활서비스 이용정도	1.22	0.817
결혼상태	1.22	0.821
주관적 건강상태	1.21	0.824
경제활동유형	1.21	0.827
장해등급	1.20	0.834
요양기간	1.20	0.835
건강행태	1.15	0.872
만성질환	1.14	0.874
취업여부	1.12	0.892
질병/사고	1.04	0.957
권역	1.01	0.990
mean VIF	**1.32**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4.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합동회귀모형(pooled OlS)과 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합동회귀모형(pooled OLS) 분석 결과[표 9] 시간에 흐름에 따라 일상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요양종결 후 3~5년차에 해당되는 2015~2017년에서, 자기효능감은 요양종결 후 2~4년차에 해당되는 2014~2016년에서 시간에 따른 효과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회귀분석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실시하였고,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적합도를 확인하여 일상생활만족도($chi^2(11)=195.61$, $p<.000$), 자아존중감($chi^2(11)=111.05$, $p<.000$), 자기효능감($chi^2(11)=126.51$, $p<.000$) 모두 시간불변인 변수를 추정하지 않는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 확인되었다.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삶의 질 영향요인은 [표 9]와 같다. 일상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여부와 주관적 건강상태로 분석되었다.

일상생활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인 경우, 취업을 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취업을 한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건강행태를 실천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을 한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건강행태를 실천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9. 개체 간 합동회귀모형(pooled OLS) 분석결과

n of obs =6,558

	변수 (referance)		일상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coef	SE	p	coef	SE	p	coef	SE	p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남성	-.017	.016	0.286	.007	.013	0.679	.083***	.015	0.000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001	.006	0.874	-.026***	.005	0.000	-.045***	.006	0.000
	교육수준 (고졸미만)	고졸이상	.031***	.006	0.000	.016***	.005	0.003	.036***	.006	0.000
	배우자 유무 (배우자없음)	배우자 있음	.150***	.013	0.000	.088***	.011	0.000	.062***	.012	0.000
	권역 (비수도권)	수도권	.026*	.011	0.017	.070***	.002	0.000	.119***	.010	0.000
산업재해 요인	**요양기간** (6개월이하)	6개월 초과 1년 초과	-.008	.009	0.372	-.024**	.008	0.002	-.012	.008	0.160
	질병/사고 (질병)	사고	-.097***	.020	0.000	-.055**	.016	0.001	-.043*	.018	0.022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이용안함)	이용함	-.030*	.011	0.011	-.019	.010	0.049	-.028*	.011	0.011
	장해등급 (1-3등급)	4-7등급 8-14등급 무장해	.023	.013	0.085	.029**	.011	0.007	.040**	.012	0.001
직업경제 요인	**취업여부** (미취업)	취업	-.009	.020	0.668	.005	.016	0.728	.024	.018	0.181
	경제활동 유형 (그 외)	원직장복귀	.065***	.012	0.000	.034**	.010	0.001	.010	.011	0.376
	개인소득 (천만원이하)	천만원이상 3천만원초과 6천만원초과	.059***	.011	0.000	.053***	.009	0.000	.068***	.010	0.000
	가구소득 (천만원이하)	천만원이상 3천만원초과 6천만원초과	.089***	.009	0.000	.040***	.008	0.000	.026**	.009	0.004
건강관련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않다)	좋다	.163***	.012	0.000	.137***	.010	0.000	.111***	.012	0.000
	만성질환 유무 (있음)	없음	.040**	.013	0.003	.008	.011	0.483	.013	.012	0.290
	건강행태 (0점)	1~4점	.057***	.005	0.000	.055***	.004	0.000	.063***	.005	0.000
시간요인	2013			(omitd)			(omitted)			(omitted)	
	2014		.007	.017	0.616	.028	.014	0.046	.043**	.016	0.007
	2015		.047**	.018	0.005	.036***	.014	0.007	.039*	.016	0.015
	2016		.082***	.018	0.000	.040***	.014	0.000	.032*	.017	0.015
	2017		.078***	.018	0.000	.066***	.015	0.000	.017	.017	0.055
_cons			2.43	.075	0.000	2.43	.063	0.000	2.778	.070	0.000
R^2				0.186			0.146			0.135	

*p<.05 **p<.01 ***p<.00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표 10.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Fixed effect model)

n of obs = 7,022
n of groups = 1,818

	변수 (referance)		일상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coef	SE	p	coef	SE	p	coef	SE	p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여성)	남성		(omitted)			(omitted)			(omitted)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041**	.015	0.006	-.015	.013	0.241	.030*	.012	0.016
	교육수준 (고졸미만)	고졸이상	.080	.136	0.555	-.165	.119	0.168	.147	.112	0.189
	배우자 유무 (배우자없음)	배우자 있음	.092*	.040	0.022	.048	.035	0.170	.053	.033	0.114
	권역 (비수도권)	수도권	-.404***	.091	0.000	-.022	.008	0.779	-.029	.075	0.702
산업재해 요인	**요양기간** (6개월이하)	6개월 초과 1년 초과		(omitted)			(omitted)			(omitted)	
	질병/사고 (질병)	사고		(omitted)			(omitted)			(omitted)	
	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이용안함)	이용함		(omitted)			(omitted)			(omitted)	
	장해등급 (1-3등급)	4-7등급 8-14등급 무장해		(omitted)			(omitted)			(omitted)	
직업경제 요인	**취업여부** (미취업)	취업	.086***	.019	0.000	.054**	.017	0.002	.081***	.016	0.000
	경제활동 유형 (그 외)	원직장복귀	-.025	.025	0.330	-.041	.022	0.066	-.025	.021	0.236
	개인소득 (천만원이하)	천만원이상 3천만원초과 6천만원초과	.005	.013	0.653	.002	.011	0.850	.011	.010	0.285
	가구소득 (천만원이하)	천만원이상 3천만원초과 6천만원초과	.025*	.012	0.047	.013	.011	0.222	.015	.010	0.147
건강관련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않다)	좋다	.110***	.014	0.000	.083***	.012	0.000	.095***	.011	0.000
	만성질환 유무 (있음)	없음	-.031	.019	0.105	.004	.017	0.788	.000	.015	0.992
	건강행태 (0점)	1~4점	.010	.007	0.176	.016*	.006	0.014	.016**	.006	0.007
	_cons		2.685	.124	0.000	3.406	.109	0.000	2.571	.103	0.000
	R^2	within		0.026			0.014			0.024	
		between		0.022			0.000			0.114	
		overall		0.015			0.000			0.076	

*p<.05 **p<.01 ***p<.00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Ⅴ. 고 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산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조사항목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종단 연구이다.

시계열 데이터 및 횡단면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패널데이터의 장점은 첫째, 횡단면 데이터는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체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변수들 간 정적(static) 관계만 추정할 수 있지만, 패널데이터는 개인이 반복하여 관찰되기 때문에 동적(dynamic)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산재패널조사와 같이 개인의 취업상태를 시간에 따라 조사함으로서 직업변경, 실업기간, 재직기간 등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

특히 실업률을 분석하는 경우 횡단면 데이터에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취업률만 계산할 수 있지만, 패널데이터를 통해서는 특정 그룹의 취업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모형에서 반영할 수 있어 모형설정오류(model misspecification)을 줄일 수 있으며,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또는 시계열 데이터에 비해 더 많은 정보 변수와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선형회귀 모형을 통해 다중공산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민인식, 2016).

패널데이터의 단점으로는 특정 개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할 경우 결측지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이러한 결측치로 인하여 추정량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이 발생하고, 추정해야 할 모수의 식별(identification)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패널 그룹 간 상관관계(group-wise corrlation)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개인이 패널 그룹인 경우 시간변수의 길이가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 패널조사 자료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산재근로자가 경험하게 되는 노동시장 참여, 산업재해 관련 특성, 가구 및 개인의 특성, 건강, 일상생활과 삶의 질 등 다면적인 변화 요인들에 대해 추적·조사 한 기초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패널조사 1차 코호트에 해당되는 2013년 ~ 2017년의 5개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과 관련된 심층적이며 동태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요인, 산업재해요인, 직업경제적요인, 건강관련요인들이 주관적 삶의 질 지표인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한 것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연구 방법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삶의 질 지표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설문항목을 이용한 척도는 각 삶의 질 지표의 정도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간단한 측정도구로서 산재근로자의 자세한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산재보험패널조사의 요양종결 산재근로자 2,000명에 대한 조사가 전체 산재근로자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는데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재보험 패널조사 1차 호트(제1차~5차 : 2013년~2017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재보험 패널조사 자료의 전체 대상자 2,000명을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하게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은 평균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산재근로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는 재해 발생 당시보다 신체적 증상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서서히 발생되며(탁진국 외, 2010), 요양종결 후 4개년까지의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을 파악한 연구에서 2, 3, 4차년도 자아존중감의 증가폭이 크지 않다(박지연, 2019)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을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실시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와 취업여부가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상태의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이 미취업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직업을 가진 노인들이 은퇴한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조윤주 외, 2007),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는 취업과 취업 예정자인 집단이 미취업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이것은 취업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얻은 결과와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이지현, 2006)와 일치한다. 또한, 중고령자의 삶의 질 구성요소와 삶의 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취업유무에 따라 건강상태, 심리적 상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사회적 관계, 경제적 상태, 노후 준비 및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취업집단이 미취업 집단보다 삶의 질 구성요소와 삶의 만족도가 높고(장백기, 2011)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산재근로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한정되어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평생교육기관이나 전문대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문화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상실된 생산성의 회복 또는 산업재해 전 생산성보다 향상되는 수준의 직업재활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다른 노동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전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장선용, 2017).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정서상태, 경제상태, 신체기능, 가족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이문수 외, 2012) 및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며, 자신의 건강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한다(고보선, 2003)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집단과 정기검진, 식사의 질에 중점을 둔 집단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이정숙 외, 2005) 및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감소, 일상생활 만족도 증가, 자기효능감 향상 등으로 인해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강진영 외, 2009) 신체활동으로 사회참여 및 대인관계가 확장되고 심리상태가 변화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한다(구교만 외, 2016)는 선행 연구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생리적인 개선과 사회적 참여의 증가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Ⅵ. 결 론

가. 결론

이번 연구는 산재보험 패널조사 1차 코호트에 해당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으로 나누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는 권역,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유무, 취업여부, 연령, 가구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자아존중감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건강행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은 주관적건강상태, 취업여부, 연령, 건강행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취업여부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고용안정성이 삶의 질, 생활만족 등 주관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De Cuyper et al., 2010; Sverke et al., 2002; Mauno et al., 2005; 이인숙 외, 2008)와 같이 산재근로자가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좋은 방향으로 인식하며, 산재근로자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좋은 인지는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나.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 지표인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는 공통적으로 취업상태,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신체적 손상이 점차 회복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근로자가 미취업 상태는 경우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모두 저하시켰고 이러한 결과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급여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유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이 치중되어 있다. 산재근로자가 변화된 근로능력, 신체 상태에 맞는 재취업 통해 취업을 활성화 하고 고용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 원직장 복귀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직장복귀지원 사업을 타직장 복귀자에게도 직업훈련제도, 취업알선 사업 등으로 구체화, 체계화하여 지원한다면 미취업의 감소 및 산재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타직장 복귀, 직무전환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문화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상실된 생산성의 회복 또는 산업재해 전 생산성보다 향상되는 수준의 직업재활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다른 노동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전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장선용, 2017)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는 것은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서(정성훈, 2018) 산재근로자의 손상된 신체상태 및 상황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가 요구된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참 고 문 헌

강선경 노지현. 산업재해 이후 산재장해인의 삶의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삶의 재구축. 직업재활연구. 23(1). 108-115; 2013.

강진영, 지용석, 김명화, 김영표. 운동 빈도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우울증의 차이.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92(2). 114-121; 2009.

고명철.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2013.

고보선. 제주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3(1). 1-12; 2003.

고용노동부. 2018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9.

구교만, 김준홍. 척수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1). 155-168; 2016

곽호근. 생활체육 참여자의 여가만족과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응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인천. 인하대학교; 2007.

권택순.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후 생활만족도에 양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2015.

근로복지공단. 제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조사표. 2014

근로복지공단. 제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유저가이드. 2014

근로복지공단. 제5차 산재보험 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8.

김광배. 산재근로자의 복귀형태와 유지기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2017.

김경숙. 사회복지전담공부원의 직무성과 결정 모형: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직무동기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16.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김용구.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자기효능감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2014.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4): 59～87; 2013.

김지원. 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2013.

김태수.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530-569, 584-585; 2010.

김미란. 산재환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 : ICF 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 충남대학교: 2014.

김선미, 김은하.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389-411; 2015.

민인식, 최필선., STATA 패널데이터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2016.

박선일, 조복희.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재활간호학회지. 7(2). 152; 2004.

박수경.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과정과 관련요인 재활복지, 16(3), 293-318 ; 2012.

박수경. 산업재해장애인의 사회통합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Vol. 4. 326-325; 1997.

박준성, 허성호, 정태연.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297-316; 2010.

박지연. 직장복귀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19.

변도화, 현혜진. 진폐증 환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간호학회, 17(2). 202-209; 2009.

박혜경.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학위논문] 경기. 한신대학교; 2009.

배경남.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 우석대학교. 2016;

백기복. 조직행동연구, 창민사, 202-203; 2011.

백원칠, 김수겸. 성인 여성의 스포츠 참여변인과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의 인과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3(6), 249- 260; 2004.

송문희, 권희영. 산업재해 근로자의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산업 재해 요인 : 범이론 모형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 17(2) 258-268; 2017.

신승배.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1회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85-312; 2009.

안준기, 오세미.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 변동 및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31(1), 109-135; 2015.

연현숙. 직장복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대전. 충남대학교; 2015.

오혁제. 중산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2009.

윤조덕, 박수경. 산재장해인 삶의 질과 재활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 5(2), 103～123; 1998.

윤조덕. 산제보험제도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노동보험포럼, 9(1), 20-33; 2016.

이문수.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2012.

이문정, 남정휘. 에코부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1(2). 89-111; 201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이인숙, 배화숙. 고용형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보장연구. 24(2), 53-80; 2008.

이정숙, 이인수. 노년기 건강관리행동과 사회경제적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7. 231-253; 2005.

이정한. 직업복귀 산재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2015.

이준희, 김주자, 이경재.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8(4), 31-37; 2016.

이중섭.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거버넌스학회. 16(1), 79-105; 2009.

이지현. 노인의 삶의 질에 재취업이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 포천중문의과대학교; 2006.

임정연, 이영민. 원직복귀 산재근로자의 직장적응 영향요인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7(1). 531-563; 2016

장선용.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2017

장정미, 최남희, 강현숙.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건충격, 불안 및 우울 수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2), 234-242; 2009.

전병제.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총론>, 11, 109-129, 1974.

장백기. 노인의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 한성대학교; 2011.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정강화. 산재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2008.

정인희. 성인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과 영향요인연구 : 청년, 중년, 노년층의 비교. 한국위기논집. 8(6). 231-247; 2012.

조윤주, 이숙현. 생산적 활동 유형에 따른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차이 :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적용. 한국가족관계학. 12(1). 119-145; 2007.

탁진국, 이민규, 우종민. 산재환자 심리검사도구(척도)개발 및 활용방안. 고용노동부; 2010.

홍혜영. 완벽주의성향, 자기효능감, 장애인의 삶의 질 : 개념적 모델의 역할. 장애인고용. 28. 51-61; 1995.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2; 1977.

Bonnie, K., Tesha, S., & Carole A. K. The Nature and Impact of Stigma Towards Injured Workers.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22(2), 143-154; 2011.

Campbell, J. D., Chew, B., & Scratchley, L. S.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3-505; 1991

Clover, A.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studies of disabled children.Paediatrics and Child Health. 18(9). 423-426; 2008.

Coopersmith,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 Co; 1967.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De Cuyper, N., De Witte, H., Kinnunen, U., & Nätti, J.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security and employability and well-being among Finnish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ee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40(1), 57-73; 2010.

Mauno, S., Kinnunen, U., Mäkikangas, A., & Nätti, J.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fixed-term employment and perceived job insecurity among health care staff.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4(3), 209-237; 2005.

Rogenbu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Sherer, M., et. al.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1982.

Sverke, M., Hellgren, J., & Näswall, K. No security: a meta-analysis and review of job insecurity and its consequenc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7(3), 242; 2002.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 measuring quality of life(1997). Retrived May 10, 2016, from http:/www.who.int/mental_health/media/68.pdf.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to Quality of Life among Industrial Injured People

Yang, kyoung Jin
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Tae Hyun Kim, Ph.D.)

As it diversely verified how various variables, including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derived from quality of life among injured workers, could actually influence quality of live among them, this study was to suggest basic data for improving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so that it attempted to provide measures to improve quality of life among injured workers.

Out of five panel surveys with 2,000 workers of each time, which Labor Welfare Corporation had conducted, from the first to the fifth years (2013~2017), this study selected final research subjects with 2,000 workers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from the first year, 1,803 workers from the second year, 1,704 workers from the third year, 1,660 workers from the fourth year, and 1,616 workers from the fifth year, except censoring and missing cases. This study set dependent variables by dividing the quality of live into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It set an independent factor, which i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and it analyzed the factor by dividing it into a demographic factor, a industrial factor related to injured workers, an occupational economic factor, and a health related factor. Utilizing SPSS and STATA, this research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fixed-effect model).

This study had results on comparis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among injured worker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after termination of care daily life satisfaction and self-efficiency of injured workers was improved but self-esteem was not improved.

Second, when it comes to differences of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on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among injured workers, as they have high educational background, they live in metropolitan areas, their care period was short, they didn't use rehabilitation services, they received no obstacle grade out of classified list of personal damage, they are employed, they returned to their original work, they subjectively feel their health is good, they do not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have chronic diseases, they regularly work out once a week, they usually sleep over 6 hours, and they drink alcohol,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were high.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smoking, if they smoke, they have the higher general life satisfactory and self-efficiency but self-esteem become lower.

Third, this study found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nd employment are commonly significant on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of injured workers. In case of the daily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health condition, presence of spouse, employment, areas, age, and family income are significant. In case of self-esteem, subjective health condition, presence of spouse, employment, areas, age, and family income are significant in order. In case of self-efficiency, subjective health condition, employment, age, and health behavior are significant in order.

Especially, this study could verify that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nd employment are common influential factors on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of injured workers. Therefore, it should be needed to make some effort to help their subjective health condition recognized highly and to improve employment supports of the unemployed industrial injured workers and quality of life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life among industrial injured workers.

Keywords: Industrial Disaster, Quality of Life,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fficiency, Self-esteem.